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의 조직과 운명

“여러분은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
어머니의 무릎에 있는 아기만큼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 이 교회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29년 6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 번역을 완성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번역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뉴욕 주 웨인 군 팔마이라로 가서 판권을 획득하고, 에그버트 비 그랜딘 씨와 5,000부를 총 3,000달러에 인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¹ 에그버트 비 그랜딘은 조셉 스미스보다 한 살 어린 젊은이로서, 팔마이라에 인쇄소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곳보다 상당히 빠르게 인쇄할 수 있는 최신식 인쇄기를 막 구입했던 참이었다. 선지자가 팔마이라와 같은 시골에서 몰몬경과 같이 긴 분량의 책을 것처럼 많이 인쇄할 수 있는 인쇄업자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몰몬경을 인쇄하는 일은 것처럼 막대하고도 광범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마틴 해리스는 인쇄비 지불 보증을 위해 그랜딘 씨에게 농장을 저당잡혔다.

1829년 늦여름, 조셉 스미스, 마틴 해리스, 그리고 그 밖의 몇몇 사람들이 몰몬경의 첫 페이지인 표제지의 인쇄 승인 검토를 위해 인쇄소에 모였다. 선지자가 그 표제지에 만족한다고 선언하자 인쇄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었다. 인쇄 작업은 약 7개월에 걸쳐 완료되었으며, 몰몬경은 1830년 3월 26일에 일반인이 구할 수 있게 되었다.



1829년 늦여름, 조셉 스미스, 마틴 해리스, 그리고 그 밖의 몇몇 사람들이
물문경의 첫 페이지인 표제지의 인쇄 승인 검토를 위해
물문경의 인쇄를 맡은 에그버트 비 그랜던과 함께 모였다.

물몬경의 번역 및 인쇄 작업이 완료되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 조직을 서둘러 진행했다. 현재 교리와 성약 20편에 수록되어 있는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분의 뜻과 명에 따라 이 지상에 다시 한 번 그분의 교회를 조직해야 할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² 정해진 날짜는 1830년 4월 6일이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 형제들에게 교회를 조직하라는 계명을 받았음을 알렸다. 또한 그에 따라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서기 1830년 4월 6일 화요일에(여섯 명이)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서 모였다.”³ 약 6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뉴욕 주 페이엠티에 있는 휘트머의 집에 모여 두 개의 방을 거의 꽉 채웠다. 참석한 사람들 중 여섯 명이 뉴욕 주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럼 스미스, 피터 휘트머 이세, 새뮤얼 스미스, 데이비드 휘트머였다.⁴

교회는 비록 그 시작에 있어서는 매우 소규모였으나, 조셉 스미스에게는 교회의 원대한 운명에 대한 예언적인 판단력이 있었다. 윌포드 우드럽은 1834년 4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있었던 신권 모임에서 선지자가 형제들에게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가 어떠한지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선지자는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들을 그곳에 있던 작은 통나무집 학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은 가로 세로 4.25미터 가량 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당시 커틀랜드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다 모이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신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 간증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 간증이 끝나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교화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 어머니의 무릎에 있는 아기만큼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⁵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에 의해 조직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1830년 4월 6일에 개최된 모임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보고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엄숙한 기도를 드리면서 모임을 시작한 뒤 우리는 이전에 받은 계명에 따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우리를 그들의 교사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여 이미 받은 명에 따라 교회를 조직해도 괜찮겠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러한 몇 가지 제안에 대해 그들은 만장일치의 지지로 찬성했다.

“그런 후 나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장로’로 성임했으며, 그 후에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장로 직분에 성임했다. 그리고 우리는 떡을 취하여 축복한 후 사람들과 나누었으며, 또한 포도주를 축복하여 그들과 함께 마셨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참석한 각 회원에게 안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했다. 성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했다. …

“우리는 영이 알려 주는 바에 따라 형제들 중 다른 몇몇 사람들을 불러 신권의 다른 직분들에 성임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간증을 나누고 성신의 권능과 축복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받은 교회, 즉 신약전서에 기록된 대로 교회의 반차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계시에 따라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기쁜 깨달음을 마음에 품은 채 헤어졌다.”⁶

1830년 6월 9일에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개최된 최초의 교회 연차 대회에서 성찬이 집행되었으며, 몇몇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신권 직분에 성임되었으며, 성도들에게 성신이 임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와 같은 광경은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며 전능하신 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마련된 것 같았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여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쁨을 인간의 자녀들에게 가져다주는 도구로 부

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과거의 거룩한 사도들이 준수한 것처럼 똑같은 사물의 질서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절차의 중요성과 엄숙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감성으로 신권 권능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 성신의 은사와 축복,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낮추어 오심을 보고 느끼며, 아울러 우리의 마음에 큰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진리의 대의를 위한 새로운 열의와 힘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⁷

하나님의 반차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였으며, 교회가 세워진 주춧돌 그리고 영적인 반석으로서, 지옥의 문은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마태복음 16:18; 에베소서 2:20 참조) 그분은 왕국을 세우셨고, 사도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떨기세택 신권에 성임하셨으며,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감독과 교사로 삼으셨으니’(에베소서 4:11) 그렇다면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은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예언(계시)과 안수에 의해-하나님과과의 교통에 의해, 신성하게 임명된 의식에 의해-신권을 통해, 신성한 임명에 의해, 하나님의 반차를 좇아 조직되었습니다.”⁹

“[몰몬경은]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나셨으며, 그분은 그분의 충만하고 풍부하며 권세 있는 축복의 복음을 이곳에 제정하셨고, 이 대륙의 주민들에게도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그리고 축복사가 있었으며, 동반구에서 누렸던 것과 똑같은 반차, 똑같은 신권, 똑같은 의식, 은사, 권능, 축복이 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¹⁰

“복음의 전도자는 축복사입니다. ... 어디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준 것처럼, 성도들의 후손의 유익을 위해 축복사가 있어야 합니다.”¹¹

신앙개조 제6조: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¹²

교회는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칠십인 정원회에 의해 인도된다.

“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리고 모퉁잇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으며, 서기관처럼이 아닌, 권세 있는 자로서 말씀드립니다.”¹³

“회장들, 즉 [제일]회장단은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한 계시는 제일회장단을 통해 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이며,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특권입니다.”¹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1830년 4월 6일 뉴욕 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후기 성도 교회는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있었던
구주 시대의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교회의 여타 부름들이나 역원들과는 다른 십이사도의 부름은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까? … 십이사도들은 순회 고등 평의회 of 직책에 부름 받은 자들로서 성도들의 교회를 감리합니다. … 그들은 이 성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며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문을 열 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권능이요 권세요 힘입니다.”¹⁵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한 올슨 프랫은 이렇게 보고했다. “주님께서는 …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은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입니다. 커틀랜드 성전이 완공된 후 신권 형제들이 함께 소집되었으며, 선지자 조셉은 십이사도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사도직을 받았으며 고대 사도들처럼 이 직분에 대한 모든 권능을 함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¹⁶

제4대 교회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보고했다. “조셉은 십이사도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둘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나의 이름을 받들기를 원할 자들이니라.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18:27~28) … 선지자 조셉이 십이사도 정원회를 조직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단합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든 반드시 가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¹⁷

“칠십인은 순회 정원회를 구성하여 언제든지 십이사도가 부름을 주면 온 세상 어디든지 가도록 되어 있다.”¹⁸

“칠십인은(사도행전 6:1~2 참조) 접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며, 이 정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여 [교회]를 감리하게 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입니다. 십이사도 또한 온 민족에게 왕국의 열쇠를 증언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 주며, 자신들을 따르고 도울 칠십인을 부르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¹⁹

**비록 악의 세력이 교회를 멸하려 하지만, “어떠한 간악한 손길도
이 사업이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1830년 4월 6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진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고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려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여러 지역으로 진리가 퍼져 나가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악의를 품은 교활한 사람들이 무죄한 자들을 파멸시키려 했으나, ... 영광스러운 복음의 충만함은 널리 퍼지고 있으며 매일같이 개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교회가 계속해서 개종자들을 얻고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²⁰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어떤 신성치 않은 손도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들끓고 폭도들이 연합하여 군대가 모이고 중상이 명예를 훼손할 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릴 때 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²¹

“[구주께서는] 또다시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 혹은 추수 때에 세워져야 할 왕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31~32) 이제 우리는 이 비유가 후기에 나오게 될 교회를 의미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이 그것에 비유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경을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가 신앙으로 이 책을 땅에 감추어 마지막 날, 곧 정해진 때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겨자씨와 같았지만, 마치 겨자씨가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듯, 이제 그것은 땅에서 나와 가지를 뻗고 높이 자라 거대하게 되고 하나님 같은 위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며, 싹이 터 땅에서 나왔고, 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으며(시편 85:11; 모세서

7:62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은사와 천사를 내려 보내시어 나뭇가지에 깃들이게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사탄의 거센 폭풍과 풍랑 앞에서 뚫을 수도 움직을 수도 없는 굳건한 바위와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머리를 일으켜 세우는 후기 성도들의 교회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힘을 잃게 만드려는 교묘한 술책과 사나운 바람에 의해 밀려오는 박해, 그리고 무서운 거품을 일으키며 이제까지 밀려왔듯이 지금도 밀려오는 의의 적들에 의해 더욱 세차게 밀어닥치는 거대한 산과 같은 박해의 파도에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견디며 승리에 찬 모습으로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²²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드린 기도의 일부로서 후에 교리와 성약 109편 72~76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 주여, 당신의 모든 교회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직접적인 연고자들과 그들의 모든 병든 자와 고난 받는 자와 땅의 모든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손대지 아니하고 세우신 왕국이 태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옵고, 당신의 교회가 암흑의 광야에서 나아와 빛을 발하여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와 같이 두렵게 하시고, 당신께서 여러 하늘의 휘장을 걷으시며, 산들이 당신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게 하시며, 골짜기들이 돋우어지게 하시며, 거친 곳들이 평탄케 되게 하실 그 날을 위하여 신부 같이 꾸미게 하시옵고, 당신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로 구름 가운데 붙들려 올라가 당신을 영접하게 하사, 우리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옷을 청결하게 하사, 우리로 의의 옷을 입게 하시며 우리의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의 보상으로 영원한 기쁨을 거두게 하시옵소서.”²³

우리는 각자 교회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서 우리의 몫을 다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대업은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공동 대업이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이며, 모두 같은 영을 취하고 한 침례로 침례 받으며 똑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의 대업의 발전과 시온 건설은 한 사람에게 중요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름 받을 때, 또 다른 사람은 그와는 다른 임무를 위해 부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른 이들에 대한 적대감, 공유되지 못하고 분리된 관심사, 배타적인 생각은 하나의 공동 대업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고린도전서 12:21, 26 참조)²⁴

“형제자매 여러분, 충실하고, 근면하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유다서 1:3 참조) 모든 남녀, 그리고 아이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마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수천 년 전 왕들과 선지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고대하던 날, 바로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들에게 가장 감미로운 곡으로, 가장 찬양하는 노래로, 그리고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영광적인 말씀으로 전하게 하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언어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

“주께서 시온을 다시 일으키셨도다.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으니’ (교리와 성약 84:99)²⁵

윌포드 우드럽이 회고하는 바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1839년에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는 십이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여러분은 어깨에 힘을 주고 그것을 짊어져 나가야 하며, 항상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이익을 지지하고 지키야 합니다.”²⁶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하나님의 대업의 발전과 시온 건설은 한 사람에게 중요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름 받고,
다른 사람은 다른 임무를 위해 부름 받는다는 것이다.”

- 137쪽에 묘사된 신권 모임에 참석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본다. 만약 조셉 스미스가 언젠가 교회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고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가? 지금 그 예언을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 교회 조직 당시, 그리고 최초의 연차 대회에서 취했던 조치에 유의하면서 138~139쪽을 복습한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은 광경은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전능하신 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139쪽)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설명한 느낌을 언제 가져 보았는가?
- 예수님의 시대, 또한 몰몬경 시대의 교회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복습한다.(139~140쪽) 교회는 오늘날 어떻게 똑같은 모형을 따르는가?
- 왜 우리에게 범세계적인 교회를 감리할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이에 대한 몇 가지 예는 141~142쪽을 참조한다.) 여러분은 제일회장

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의 봉사를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교회의 운명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예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가?(142~144쪽 참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이에 대한 몇 가지 예는 144~145쪽을 참조한다.)
-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남녀, 그리고 아이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마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십시오.”(144쪽) 그의 권고를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관련 성구: 다니엘 2:31~45; 모사이야서 18:17~29; 교리와 성약 20:1~4; 65:1~6; 115:4~5

주

1. *History of the Church*, 1:71;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34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History of the Church*, 1:64;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29쪽, 교회 기록 보관소.
3. *History of the Church*, 1:75~77;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37쪽, 교회 기록 보관소.
4. 뉴욕 주 법은 교회를 조직하거나 교회 업무를 처리할 때 세 명 내지 아홉 명의 서명을 요구했다. 선지자는 여섯 명을 택했다.
5. Wilford Woodruff, Conference Report, 1898년 4월, 57쪽; 현대화된 구두법 및 대문자 표기법.
6. *History of the Church*, 1:77~79; 단락 구분 변경;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37~38쪽, 교회 기록 보관소.
7. *History of the Church*, 1:85~86;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42쪽, 교회 기록 보관소.
8. 1843년 7월 23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Joseph Smith, Collection, Addresses, 1843년 7월 23일, 교회 기록 보관소
9. *History of the Church*, 4:574; “Try the Spirits”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설, 1842년 4월 1일, 744~745쪽; 조셉 스미스는 본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10. *History of the Church*, 4:538; 존 윌트워스와 조지 바스토우의 요청으로 조셉 스미스가 쓴 서한에서 발췌,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2년 3월 1일, 707~708쪽.
11. *History of the Church*, 3:381; 1839년 6월 27일,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러드 리차즈가 보고함.
12. 신앙개조 1:6
13. 조셉 스미스가 아이작 깔랜드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9년 3월 22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0년 2월, 53쪽; 현대화된 구두법 및 대문자 표기법.

14. *History of the Church*, 2:477; 1837년 4월 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Messenger and Advocate*에 보고됨, 1837년 4월, 487쪽.
15. *History of the Church*, 2:200; 단락 구분 변경; 1835년 2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교회 평의회 모임 회의록에서; 올리버 카우드리가 보고함.
16. 올슨 프랫, *Millennial Star*, 1869년 11월 10일, 732쪽.
17. 윌포드 우드럽, *Deseret Weekly*, 1890년 8월 30일, 306쪽; 현대화된 대문자 표기법.
18. *History of the Church*, 2:202;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B-1, 577쪽, 교회 기록 보관소.
19. *History of the Church*, 2:431~432; 1836년 3월 30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가르침에서 발췌.
20. *History of the Church*, 2:22; "The Elders of the Church in Kirtland, to Their Brethren Abroad"에서, 1834년 1월 22일,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4월, 152쪽.
21. *History of the Church*, 4:540; 조셉 스미스가 존 웬트워스와 조지 바스토우의 요청으로 쓴 서한에서 발췌,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2년 3월 1일, 709쪽.
22. *History of the Church*, 2:268; 원문에 있는 마지막 대괄호 안에 있는 말씀; 현대화된 구두법 및 대문자 표기법; 조셉 스미스가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12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12월, 227쪽.
23. 교리와 성약 109:72~76; 1836년 3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조셉 스미스가 드린 기도.
24. *History of the Church*, 4:609; "The Temple"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설, 1842년 5월 2일, 776쪽; 조셉 스미스는 본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25. *History of the Church*, 4:214;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이 보고한 내용에서, 1840년 1월 4일,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0년 10월, 188쪽.
26. Wilford Woodruff이 인용함, *Deseret News: Semi-Weekly*, 1883년 3월 20일, 1쪽.